

‘한류 빅’ 나란히 안방극장 복귀

카리스마 송중기·살인누명 김수현·미드 외출 이민호

송, tvN ‘빈센조’서 마피아 변호사 역 김, 영국 리메이크작 ‘그날밤’ 주인공 이, 데뷔 첫 美 드라마 ‘파친코’ 출연



연기자 송중기, 김수현, 이민호(왼쪽부터)가 올해 국내외 안방극장을 떠나며 다양한 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한류 강자’들이 돌아온다. 국내외 탄탄한 인기를 자랑하는 한류스타 송중기, 김수현, 이민호가 새 드라마를 통해 각기 다른 도전을 펼친다. 일제히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이들의 움직임에 방송사 안팎의 기대감이 쏠린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안방극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시선도 나오고 있다.

●송중기…마피아 변호사로 연기 변신 2월 방영을 앞둔 tvN 토일드라마 ‘빈센조’로 가장 먼저 시청자와 만난다. 변호사들이 악당과 맞서는 내용의 드라마에서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몸담았던 변호사 역을 맡았다. 능청스러움과 카리스마를 넘나든다. 그동안 안방극장에서 선보여온 달콤한 매력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법이 아닌 갖은 ‘술수’로 악당들을 소탕하면서 통쾌함을 선사한다.

작년 중순 일찌감치 드라마를 신작으로 선택하고 준비해왔다. 이탈리아 로케이션도 오랫동안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세트 촬영과 컴퓨터그래픽(CG) 합성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제작진도 화려하다. 드라마 ‘돈꽃’ ‘왕

이 된 남자’ 등으로 남다른 개성을 드러낸 김희원 PD가 연출을 맡는다. ‘열혈사제’ ‘김과장’ 등 통쾌한 정서의 구연의 이야기를 주로 써온 박재범 작가가 집필한다. 전여빈과 옥택연이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다.

●김수현…유명 영국 드라마 리메이크 2008년 영국 BBC가 방영한 ‘크리미널 마인드’를 리메이크한 드라마 ‘그날밤’의 주인공을 맡는다. 하룻밤의 일탈로 인해 살인범으로 불린 대학생 역할을 맡는다. 원작에서는 영화 ‘함수-어는 살인

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벤 위쇼가 연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뒤바뀌는 일정 때문에 다양한 작품을 두고 고민하다 최근 ‘그날밤’ 출연을 확정했다.

드라마는 김수현을 둘러싼 사건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명과 암을 담는다. 차승원이 변호사 역으로 호흡을 맞춘다. ‘열혈사제’ 등을 만든 이명우 PD가 연출한다. 제작진은 막바지 캐스팅 작업을 마치는 대로 촬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민호…미드 출연에 유튜브 소통까지

최근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TV플러스 드라마 ‘파친코’(Pachinko)를 촬영 중이다. 미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데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드라마는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가 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 베테랑 연기력을 비롯해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배우들이 참여한다. 작년 12월 한국 촬영을 마쳤고, 2월 캐나다 촬영을 떠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계정 ‘이민호 필름’으로도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직접 기획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관련 콘텐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내왔다. 1987년생 동갑내기 가수인 이승기와 콜라보레이션 영상 작업도 계획 중이다. 이들은 6일 ‘함께 작업해보자’며 의기투합하는 과정을 담은 예고편을 유튜브로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BTS, 스포티파이 최다 스트리밍 기록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대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 최다 기록을 썼다. 7일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K팝 연말결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전 세계 가장 많은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자세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레드벨벳 등이 케이팝 톱5에 올랐다. 이들을 비롯해 한국가수 10팀의 음원 재생 횟수는 총 106억7000만회를 넘어섰다.

성유리, 미혼모·아이들에 온정의 손길

연기자 성유리가 미혼모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따스한 손길을 내밀었다. 성유리는 7일 미혼모자 생활시설에 후원금 3000만원과 화장품을 전달했다.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는 미혼모들을 비롯해, 응급, 노숙자, 장애 여성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의료비 및 신생아들의 예방접종과 치료비 등으로 써 달라며 금품을 기탁했다.

‘킹덤’ 시즌3 오픈 세트 화재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오픈 세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후 1시42분경 경북 문경 가운데에 들어선 ‘킹덤’ 시즌3의 오픈 세트에서 불이 나 한 시간 만에 진화됐다. 연기자와 스태프 등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날 화재는 제작진이 급속용접 버너인 토치램프로 얼어붙은 눈을 녹이다 성곽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트의 내부 목재가 불에 타고 성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CBS ‘멘탈리스트’·넷플릭스 ‘종이의 집’도 리메이크

유명 해외드라마, 한국판 재탄생

‘크리미널 마인드’, ‘멘탈리스트’, ‘종이의 집’…

국내 시청자에게도 낯익은 해외 드라마가 ‘한국판’으로 재탄생한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CBS가 방영한 ‘멘탈리스트’,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넷플릭스를 통해 시리즈를 선보인 ‘종이의

집’, 2008년 영국의 ‘크리미널 마인드’ 등 해외 드라마의 국내 리메이크 소식이 잇따르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멘탈리스트’는 박시후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정신과 의사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경찰과 협업하는 이야기를 펼친다. 국내에서도 시청자들이 탄탄한 원작의 설정과 이야기 흐름을 그대로 가져올 계획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 ‘프로듀사’ 등으로 이름을 알린 표민수 PD가 연

출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기대작으로 꼽힌다. 상반까지 캐스팅 등 준비를 마치고 촬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스페셜 드라마 ‘종이의 집’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중앙은행과 조폐국의 금고를 털어내는 과정을 그린 범죄극이다. 국내 리메이크가 확정돼 유지태, 김윤진 등이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OCN ‘손터 게스트’ 등을 만든 김홍선 PD가 연출자로 내정됐다. 원작의 알렉스

피나 총괄프로듀서는 “한국의 콘텐츠는 독보적 작법과 문화를 자랑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기자 김수현과 차승원이 최근 출연을 확정지은 ‘그날밤’은 영국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를 원작 삼는다. 기존 설정을 따르되, 국내 형사사법 제도에 맞게 이야기를 일부 변형했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7일 “스릴러, 추리 등 다양한 장르물에 대한 대중적 욕구가 커져가는 흐름을 반영한다”면서 “최근 한국 콘텐츠의 해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리메이크 협업을 원하는 제작진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즐거워 TV·독독한 TV·TV프로그램 (8일·금)

Table with TV program listings for channels KBS1, KBS2, MBC, SBS, EBS1, 지역민방, 채널A, TV조선, JTBC, MBN. Includes times and program titles.